保健敎育 · 健康增進學會誌 第19卷 第3號(2002. 9) pp.51-72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19, No.3(2002)

대구시 일부지역 중학생들의 건강관련 위험행동과 관련요인조사

이중정 · 이충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 차〉

Ⅰ. 서론
Ⅱ. 연구대상 및 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청소년기는 급작스런 육체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 인지변화를 겪는 기간으로 이 시기에 겪을 수 있는 많은 해로운 건강결과는 상당수가 위험행동의 결과에 유래한다.

이 시기에 겪는 위험행동은 청소년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습관 또는 생활양식이 되어 버리므로 성인이 되어서도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이러한 습관이나 생활 양식 등은 40대 이후에 만성병 발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한 개인의 평생 건강의 중요한 결정적인 기간이 된다(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1996; U.S. Dep. Health Hum.Ser., Public Health Serv, 1991).

청소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위험행동을 하기도 하고, 혹은 하지 않기도 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경험을 쌓아가며, 그들의 판단은,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건강문제에 대한 반응은 그들의 독특한 가치와 규범에 따라 상이하다.

경제적 빈곤, 지역사회나 주변의 지원부족, 낮은 학업 성취도 등이 학생들이 위험행동을 하도록 하는 선행요인임이 여러 연구에서 규명되어 있으며, 보건, 교육과 학습능력간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는 학생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이 흡연과 음주를 더 일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 통상적으로 평생 흡연과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흡연, 음주, 운동부족, 잘못된 식습관의 결과는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Naidoo와 Willis, 2000).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 폭력, 자살, 식사 장애, 10대 임신, 성병과 같은 다

양한 범위의 건강과 관련된 위험행위를 행동을 "위험행동 유행"(risk behavior epidemic)이라고 부르며 사회적으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행동의 수준을 파악하여 개입의 우선권을 설정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CDC)에서 청소년 위험행동감시시스템(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YRBSS)을 개발하여 청소년 및 25세 이상의 성인의 사망 및 이환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범주의 행동을 조사하고 있다(Kolbe 등, 1993).

우리 나라에는 아직 미국에서 개발된 청소년 위험행동 감시시스템과 같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태여서, 청소년 건강 증진사업의 우선순위설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시의 한 구의 중학교 전수에서 표본 추출한 대상자들의 건강위험행동의 수준을 조사하여 건강습관을 수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행하였으며, 향후 우리 나라 청소년 및 성인의 사망 및 이환 자료를 기초로 이들 사망 및 이환에 대한 건강위험행동을 감시하여 공중보건학적인 개입의 우선권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2002년 5월 대구광역시 한 구에 소재 하는 10개의 중학교에 한 학교 당 각 학년별로 한 개 학급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 1040명에서 청소년 개인의 건강위험행동을 조사하였다. 조사 학교 중 4 곳은 남녀 공학이었으며, 4곳은 남자, 2곳은 여자 중학교였다.

조사는 한국판 청소년위험행동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양호교사와 체육교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한국판 청소년위험행동조사 설문지는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개발한 Youth Risk Behavior Survey(YRBS) 설문지를 기초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몇 가지 항목을 빼거나 수정 또는 추가한 조사지 이다. YRBS는 미국에서 청소년 및 청년들의 사망 및 이환 자료를 기초로 이들 사망 및 이환에 대한 건강위험행동을 감시하여 공중보건학적인 개입의 우선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며, 조사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서 불의의 손상 및 고의의 손상에 기여하는 행동, 흡연,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 불의의 임신 및 성병에 기여하는 성적인 행동,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신체적인 비활동성 이다(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9).

YRBS에 개인적인 안전과 관련된 위험행동을 묻는 문항은 원래 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 등에 대해 질문을 하나, 이번 설문지에서는 자동차를 빼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각각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헬멧 착용여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하였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를 탈 때 안전벨트 착용은 어느 정도 합니까?"의 문항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총 문항 수는 9문항이 되었다. 폭력 관련 행동에 대한 문항은 총 10문항이나 이들 중 총기와 관련된 문항 3개와 성폭력에 대한 문항 1개를 제외하여 총 6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우울한 감정과 자살

에 대한 문항은 그대로 수정 없이 사용하였으며, 흡연에 관한 문항 12개 중 9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빠진 3문항은 우리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궐련(cigarette)이외의 담배에 대한 문항들이었다. 음주에 대한 5개 문항은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추가로 위생개념을 조사할 목적으로 "술을 마실 때 술잔을 돌립니까?"의 문항과 지난 1개월 동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마약과 약물남용에 대한 13개의 문항은 제외하였으며 성 경험에 대한 8개의 문항은 우리 나라 중학생 현실에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체중에 대한 7개의 문항은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식습관에 대한 문항 7개 중 감자와 당근 먹는 횟수를 묻는 2문항을 제외하고 대신에 공동으로 먹는 찌개를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짜게 먹는 정도를 묻는 2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활동을 묻는 8개의 문항 중 체육교육수업(physical education class)에 대한 2개의 문항과 운동 중 다치는 정도를 묻는 1개의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하루에 컴퓨터 게임(DDR 등 제외)을 하는 시간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만들었다. 흡연 및 음주자 구분은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1995)의 정의를 따랐다. 평생 흡연자(lifetime cigarette user)는 한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 자, 현재 흡연자(current user)는 지난 1개월간 담배를 하루 이상 피운바 있는 자, 상습적인 흡연자(frequent user)는 지난 1개월간 20일 이상 담배를 피운 자, 규칙적인 흡연자(regular user)는 지난 1개월간 하루에 1개피 이상 피운 적이 있는 자로 정의하였으며 평생 음주자(lifetime alcohol user)는 종교적/의식적인 이유 마신 것 이외에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인 있는 자, 현재 음주자(current user)는 지난 1개월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날이 하루 이상인 자, 산발적으로 과도한 음주자(episodic heavy drinker)는 한자리에서 계속하여 반병 이상의 술을 마신 날이 하루 이상인 자로 정의하였다.

결과의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들의 건강위험행동 항목에 대해서는 성별로 나누어 학년별로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음주와 흡연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다른 위험 행동들을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 대상 학생 1140명중 남학생이 642명, 여학생이 498명 이였으며, 1학년 2학년, 3학년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남학생에서 30.9%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나 1학년보다는 3학년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32.2%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9.9%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11.7%가 내성적이라고 답하였으며, 16.6%가 외향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은 21%가 내성적이라고 하였으며, 중간이라고 답한 학생이 57.9%였다. 집안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남학생에서 78.5%가 중간이라고 답하였고 여학생에서는 83.5%가 중간이라고 답하였다.

학생들의 한달 용돈은 삼만원 이상이 남학생

에서 48.2%, 여학생에서 38.7%로 가장 많았다. 현재 친척집이나, 자취, 하숙을 하고 있어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은 학생은 남자에서 4%, 여학생에서 3.0%를 차지하였다. 학교형태로는 남학교나, 여학교의 단일 성별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남학생에서 71.3%, 여학생에서 42.8%였으며,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남학생에서 28.7%, 여학생에서 57.2%였다(표 1).

개인적인 안전과 관련된 행동에서 과거 12개월 동안 자전거를 탄 경험이 있는 남학생 504명 중 97%인 489명이 자전거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여학생 중에는 286명중 282명이 헬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종교								
기독교	47(21.2)	43(20.9)	48(23.6)	138(21.9)	28(16.8)	46(28.6)	36(22.1)	110(22.4)
천주교	17(7.7)	18(8.7)	8(3.9)	43(6.8)	10(6.0)	11(6.8)	11(6.7)	32(6.5)
불교	76(34.2)	71(34.5)	75(36.9)	222(35.2)	71(42.5)	46(28.6)	47(28.8)	164(33.4)
없음, 기타	82(36.9)	74(35.9)	72(35.5)	228(36.1)	58(34.7)	58(36.0)	69(42.3)	185(37.7)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만족한다	88(39.1)	55 (26.7)	54 (26.1)	197(30.9)	65(38.9)	52(31.9)	43 (25.7)	160(32.2)
그저 그렇다	121(53.8)	129(62.6)	118(57.0)	368(57.7)	90(53.9)	92(56.4)	106(63.5)	288(57.9)
만족하지 못한다	16(7.1)	22(10.7)	35(16.9)	73(11.4)	12(7.2)	19(11.7)	18(10.8)	49(9.9)
성격								
내성적	26 (11.7)	37(17.9)	49(23.8)	112(17.6)	24(15.2)	34(21.3)	43(26.5)	101(21.0)
중간	160(71.7)	137(66.2)	126(61.2)	423(66.5)	114(72.2)	87(54.4)	77(47.5)	278(57.9)
외향적	37(16.6)	33(15.9)	31(15.0)	101(15.9)	20(12.7)	39(24.4)	42(25.9)	101(21.0)
경제상태								
상	28(12.7)	26(12.6)	14 (6.8)	68(10.8)	14(8.5)	10(6.1)	16(9.6)	40(8.1)
중	177(80.5)	153(74.3)	166(80.6)	496(78.5)	147(89.1)	136(82.9)	131(78.4)	414(83.5)
하	15(6.8)	27(13.1)	26(12.6)	68(10.8)	4(2.4)	18(11.0)	20(12.0)	42(8.5)
한달용돈								
만원 미만	33(16.3)	18 (9.3)	10 (5.3)	61 (10.4)	17(11.6)	11(7.5)	5 (3.3)	33(7.5)
만원-이만원 미만	50(24.6)	39(20.2)	31(16.4)	120(20.5)	44(30.1)	37(25.3)	32(21.3)	113(25.6)
이만원-삼만원 미만	46(22.7)	34(17.6)	42(22.2)	122(20.9)	37(25.3)	50(34.2)	38(25.3)	125(28.3)
삼만원 이상	74(36.5)	102(52.8)	106(56.1)	282(48.2)	48(32.9)	48(32.9)	75(50.0)	171(38.7)
부모와의 동거								
동거	214(97.3)	200(96.6)	193(94.1)	607(96.0)	163(98.2)	156(95.1)	162(97.6)	481(97.0)
비동거	6(2.7)	3(3.4)	12(5.9)	25(4.0)	3(1.8)	8(4.9)	4(2.4)	15(3.0)
학교형태								
남학교, 여학교	151(66.8)	153(73.2)	154(74.4)	458(71.3)	73(43.7)	71(43.3)	69(41.3)	213(42.8)
남여공학	75 (33.2)	56(26.8)	53(25.6)	184(28.7)	94(56.3)	93(56.7)	98(58.7)	285(57.2)
총 원	226(100.0)	209(100.0)	207(100.0)	642(100.0)	167(100.0)	164(100.0)	167(100.0)	498(100.0)

멧착용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탄 경우도 7명, 음주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에 탄 경우도 11명이 있었다.

과거 12개월 동안 오토바이를 탄 경험이 있는 남학생 96명중 68명(70.8%)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드물게 착용하였으며, 오토바이를 탄 경험이 있는 여학생 43명 중에서도 69.8%인 30명이 헬멧착용을 하지 않거나 드물게 착용하였다. 음주를 하고 직접 오토바이를 탄 경우도 3명이 있었으며, 음주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탄 경우도 8명이 있었다. 평소 자동차에 탈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드물게 착용하는 학생도 남학생에서 28.2%, 여학생에서 33.0%나 차지하였다(표 2).

학교의 생활 중 폭력과 관련된 행동을 조사한 결과에서 지난 1달 동안 학교 등·하교시 신변의 위협 때문에 결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에서 19명, 여학생에서 3명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몽둥이·칼 등으로 위협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에서 35명, 여학생에서 7명이었다. 지난 1년간 폭력적인 싸움을 한적이 있는 학생은 남학생에서 197명으로 24.5%나 차지하였으며, 여학생에서도 6%가 싸움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폭력적인 싸움은 대부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싸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남학생에서 7.3%, 여학생에서 0.6%있었으며,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구타를 당한 적이 있는 학생도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각각 20.6%와 6%였다(표 3).

2주 이상 계속하여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 학생은 남학생이 118명으로 18.5%, 여학생이 109명으로 21.9%나 되었으며,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학생도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각각 12.7%, 20.3%아 차지하였다.

자살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에서 6.1%, 여학생에서 8.4%나 되었으며, 실제로 자살 행동을 취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남학생에서 1.7%, 여학생에서 3.4%였다. 자살을 시도하여 상해·약물중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학생도 남학생이 4.3%, 여학생이 2.5%였다(표 4).

조사 학생중 담배를 피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남자에서 128명으로 20.5%, 여자에서 8.8%였다. 지난 1개월 동안 하루이상 담배를 피운 현재 흡연자는 남학생이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 38.8%, 여학생에서 33.3%였다. 지난 1개월 동안, 20일 이상 담배를 핀 상습흡연자는 남학생에서 8.1% 여학생에서 9.1%였다. 지난 1개월 동안 하루 1개피 이상 담배를 핀 규칙적인 흡연자도 남학생에서 32.6%, 여학생에서 38.2%였으며, 담배 1개피를 다 피울 정도가 된 연령은 남학생에서 13-14세가 43.5%, 여학생에서는 13-14세가 48.5%로 가장 많았다. 지난 1개월 동안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운 날이 하루 이상이 되는 학생은 남학생에서 5.1%, 여학생에서 2.9%였다.

담배를 구한 방법으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담배 구입시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은 경우는 남, 여학생에서 6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남학생에서 68.2%, 여학생에서 74.1 %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5).

조사 대상자중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학생이 남학생에서 168명, 여학생에서 138명이었다. 이중 지난 1개월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표 2>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조사

항 목	남 자				여 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지난 1년 동안 자전거를 탄 경험이 있을 경우 (남자: n=501, 여자: n=286)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드물게 착용	166(97.6)	157(95.7)	166(97.6)	489(97.0)	98(98.0)	86(98.9)	98(99.0)	282(98.6)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탄 적이 있다	0(0.0)	4(2.5)	4(2.5)	8(1.6)	1(1.0)	2(2.3)	0(0.0)	3(1.0)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다	0(0.0)	3(1.8)	2(1.2)	5(1.0)	1(1.0)	1(1.1)	0(0.0)	2(0.7)
지난 1년 동안 오토바이를 탄 경험이 있을 경우 (남자: n=96, 여자: n=43)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드물게 착용	23(62.2)	19(79.2)	26(74.3)	68(70.8)	12(85.7)	10(62.5)	8(61.5)	30(69.8)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다	2(5.4)	1(4.3)	4(11.4)	7(7.4)	0(0.0)	1(6.3)	0(0.0)	1(2.3)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다	0(0.0)	0(0.0)	2(5.7)	2(2.1)	0(0.0)	1(6.3)	0(0.0)	1(2.3)
평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드물게 착용한다 (남자: n=642, 여자: n=498)	46(21.4)	65(33.7)	56(30.3)	167(28.2)	37(23.7)	55(35.5)	62(40.5)	154(33.0)

<표 3> 폭력 - 관련 행동에 관한 조사

항 목	남 자(n=642)				여 자(n=498)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지난 1달 동안 학교 등·하교시 신변의 위협 때문에 결석한 적이 있다	8(3.5)	5(2.4)	6(2.9)	19(3.0)	0(0.0)	3(1.8)	0(0.0)	3(0.6)
지난 1년 동안 몽둥이·칼 등으로 위협받은 적이 있다	7(3.1)	11(5.3)	17(8.3)	35(5.5)	0(0.0)	4(2.4)	3(1.8)	7(1.4)
지난 1년 동안 폭력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다	57(25.4)	61(29.2)	39(18.8)	197(24.5)	12(7.2)	9(5.5)	9(5.4)	30(6.0)
지난 1년 동안 싸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16(7.1)	19(9.1)	12(5.8)	46(7.3)	2(1.2)	1(0.6)	0(0.0)	3(0.6)
지난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폭력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다	56(24.8)	60(29.1)	44(21.3)	160(25.0)	8(4.8)	6(3.7)	4(2.4)	18(3.6)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	45(20.0)	48(23.0)	39(18.9)	132(20.6)	11(6.6)	11(6.7)	8(4.8)	30(6.0)

<표 4> 우울한 감정과 자살 의도에 관한 조사 (지난 1년 동안)

항 목	남 자 (n=642)				여 자(n=498)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2주 이상 계속하여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28(12.6)	43(20.7)	47(22.7)	118(18.5)	22(13.2)	38(23.3)	49(29.3)	109(21.9)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0(9.0)	25(12.0)	36(17.4)	81(12.7)	28(16.8)	35(21.3)	38(22.8)	101(20.3)
자살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다	8(3.5)	11(5.3)	20(9.7)	39(6.1)	7(4.2)	17(10.4)	18(10.8)	42(8.4)
실제로 자살 행동을 취해 본 적이 있다	4(1.8)	3(1.4)	4(1.9)	11(1.7)	4(2.4)	9(5.5)	4(2.4)	17(3.4)
자살을 시도하여 상해·약물중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12(5.4)	12(5.8)	3(1.5)	27(4.3)	3(1.9)	3(1.9)	6(3.7)	12(2.5)

<표 5> 흡연에 관한 조사

항 목	남 자 (N=128)				여 자 (N=43)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한 두 모금이라도)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n=1140)	32(14.5)	41(20.5)	55(27.0)	128(20.5)	7(4.3)	17(10.5)	19(11.7)	43(8.8)
지난 1개월 동안, 하루 이상 담배를 피웠다	7(29.2)	10(32.3)	21(48.8)	38(38.8)	1(25.0)	5(35.7)	5(33.3)	11(33.3)
지난 1개월 동안, 20일 이상 담배를 피웠다	0(0.0)	1(3.2)	7(16.3)	8(8.1)	0(0.0)	1(7.1)	2(13.3)	3(9.1)
지난 1개월 동안, 하루에 1개피 이상 피웠다	6(27.6)	7(22.6)	18(42.9)	31(32.6)	1(25.0)	7(50.0)	5(31.2)	13(38.2)
담배 1개피를 다 피울 정도가 된 나이								
만 11~12 세	14(70.0)	11(37.9)	15(34.9)	40(43.5)	1(33.3)	8(53.3)	2(13.3)	11(33.3)
만 13~14 세	6(30.0)	14(48.3)	15(34.9)	35(38.0)	2(66.7)	7(46.7)	7(46.7)	16(48.5)
만 15세 이상	0(0.0)	4(13.8)	13(30.2)	17(18.5)	0(0.0)	0(0.0)	6(40.0)	6(18.2)
지난 1개월 동안 담배를 구한 방법								
가게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	1(4.8)	4(15.4)	10(25.0)	15(17.2)	0(0.0)	4(30.8)	4(28.6)	8(26.7)
담배 자판기에서 구입	0(0.0)	0(0.0)	1(2.7)	1(1.2)	0(0.0)	1(9.1)	0(0.0)	1(3.6)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여 구입	0(0.0)	0(0.0)	1(2.7)	1(1.2)	0(0.0)	0(0.0)	0(0.0)	0(0.0)
다른 사람에게 빌렸다	1(4.8)	3(12.0)	4(10.8)	8(9.6)	0(0.0)	0(0.0)	1(7.1)	1(3.7)
모르게 훔쳤다	0(0.0)	0(0.0)	1(2.7)	1(1.2)	0(0.0)	0(0.0)	1(7.1)	1(3.7)
기타 방법으로	6(28.6)	4(16.0)	6(15.4)	16(18.8)	0(0.0)	3(27.3)	0(0.0)	3(10.7)
지난 1개월 동안, 학교 내에서 담배를 하루 이상 피웠다	0(0.0)	0(0.0)	5(11.4)	5(5.1)	0(0.0)	0(0.0)	1(5.9)	1(2.9)
담배 구입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15(38.2)	20(64.5)	24(55.8)	59(61.5)	4(100.0)	7(50.0)	10(58.8)	21(60.0)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	16(72.7)	15(57.7)	27(73.0)	58(68.2)	2(66.7)	7(63.6)	11(84.6)	20(74.1)

있는 현재음주자가 남학생에서 음주경험자 168명중 47.6%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증가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도 62.8%가 음주경험자중 현재 음주자로, 남학생에 비해 오히려 많은 비율을 보였다. 지난 1개월 동안, 한자리에서 계속하여 반병 이상의 술을 마신 산발적인 과도한 음주를 경험한 학생도 남학생에서 17.9%, 여학생에서 32.1%로 나타났으며, 지난 1개월 동안 학교 내에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한 학생도 남학생에서 10명, 여학생에서 8명이 있었다. 술을 시작한 연령은 남학생에서 만 11세에서 12세 사이가 41.7%, 만13세에서 14세 사이가 38.1%였으며, 여학생에서는 만 13세에서 14세 사이가 53.6%로 가장 많았다.

술을 마실 때 술잔을 돌리는 학생도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각각 9.5%와 13.0%였으며, 지난 1개월 동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도 남학생에서 9.5%, 여학생에서 7.9%였다(표 6).

자신의 체중에 관해서는 남학생에서 34.9%가 자신이 약간 뚱뚱하거나 매우 뚱뚱하다고 답하였으며, 여학생에서는 무려 반 이상인 51.3%가 자신이 약간 뚱뚱하거나 매우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체중감량에 관한 노력을 한학생도 남자에서 167명, 여자에서는 226명이나 되었다. 지난 1 개월 동안 체중감량을 위해 운동을 한 적이 있는 남학생은 33.9%, 여학생에서는 47.8%였으며, 식사량을 줄인적인 잇는 경우는 남학생에서 37.7%, 여학생에서 37.6%였다. 또한 지난 1개원동안 체중감량을 위해 하루종일 굶은 적이 있는 학생도 남학생에서 3.9%, 여학생에서는 7.2%나 되었다. 지난 1개월 동안 체중감량을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먹은 학생도 남학생에서 0.9%, 여학생에서 1.4%였으며, 체중감량을 위해 토하거나, 설사약을 먹은 경우도 남학생에서 0.6%, 여학생에서 1%였다(표 7).

식습관과 관련된 행태조사에서 지난 1주일 동안 과일주스를 한번도 마시지 않은 학생이 남학생, 여학생 각각 23.2%, 24.9%였으며, 8회이상 마신 학생은 남학생에서 7.6%, 여학생에서 6.4%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1주일 동안 과일을 먹은 횟수는 먹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남학생이 12.0%, 여학생에서는 7.1%였으며, 8회 이상 먹은 학생은 남학생에서 9.3%, 여학생에서 8.3%였다.

지난 1주일 동안 녹황색 채소를 한번도 먹지 않았다고 대답한 학생은 남학생에서 10.8%, 여학생에서 9.5%였으며, 남, 여학생 모두에서 1-3회 정도 먹은 학생이 가장 많았다. 녹황색 채소 외에 다른 채소를 먹은 학생도 지난 일주일에 1-3회가 가장 많았으며, 8회 이상 먹은 학생은 남학생에서 6.0%, 여학생에서 5.0%였다. 지난 일주일동안 한번도 우유를 마신 적이 없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0.8%였으며, 여학생은 14.1%였다. 매일 1번 이상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남학생에서 42.3%, 여학생에서 19.5%로 남녀학생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표 8).

평상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할 경우 찌개류를 먹을 때 국자로 따로 덜어서 먹는다고 대답한 학생은 남자에서 25.0% 여자에서 15.3%였으며, 누구와도 상관없이 갑이 먹는다고 대답한 학생은 남자에서 38.5%, 여자에서 35.5%였다. 다른 사람에 비해 음식을 짜게 먹는다고 답한 학생은 남학생에서 39.7%, 여학생에서 29.4%였고 다른 사람에 비해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남녀 모두에서 5% 미만이었다(표 9).

신체적 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루 이상 한 적이

<표 6> 음주에 관한 조사

항 목	남 자(n=168)				여 자(n=138)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지금까지 술을 마셔본 적이 있다	42(18.6)	53(25.4)	73(35.3)	168(26.2)	19(11.4)	53(32.3)	66(39.5)	138(27.7)
지난 1개월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신적이 있다	18(42.9)	25(47.2)	37(50.7)	80(47.6)	10(52.6)	39(73.6)	37(56.9)	86(62.8)
지난 1개월 동안, 한자리에서 계속하여 반병 이상의 술을 마신적이 있다	3(7.1)	10(18.9)	17(23.3)	30(17.9)	2(11.1)	24(44.4)	18(27.7)	44(32.1)
지난 1개월 동안, 학교 내에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적이 있다	1(2.4)	2(3.8)	7(9.6)	10(6.0)	0(0.0)	5(9.3)	3(4.6)	8(5.8)
처음술을 시작한 나이								
만 11~12 세	27(64.3)	18(34.0)	25(34.2)	70(41.7)	9(47.4)	13(24.5)	10(15.2)	32(23.2)
만 13~14 세	15(35.7)	30(56.6)	19(26.0)	64(38.1)	10(52.6)	34(64.2)	30(45.5)	74(53.6)
만 15~16 세	0(0.0)	5(9.4)	29(39.7)	34(20.2)	0(0.0)	6(11.3)	26(39.4)	32(23.2)
술을 마실 때 술잔을 돌린다	5(11.9)	2(3.8)	9(12.3)	16(9.5)	2(10.5)	6(11.3)	10(15.2)	18(13.0)
지난 1개월 동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적이 있다	3(7.1)	1(1.9)	12(16.4)	16(9.5)	1(5.3)	5(9.3)	5(7.6)	11(7.9)

<표 7> 체중 관련 행태에 관한 조사

항 목	남 자(n=642)				여 자(n=498)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자신이 과체중 이라 생각한다	78(22.8)	78(37.3)	67(32.6)	223(34.9)	67(40.3)	90(54.9)	98(58.7)	255(51.3)
체중에 관한 노력								
체중 감량	48(21.4)	60(29.0)	59(28.6)	167(26.2)	75(45.2)	74(45.1)	77(46.1)	226(45.5)
체중 증가	57(25.4)	55(26.6)	46(22.3)	158(24.8)	9(5.4)	10(6.1)	6(3.6)	25(5.0)
현재 체중 유지	70(31.3)	52(25.1)	48(23.3)	170(26.7)	38(22.9)	35(21.3)	41(24.6)	114(22.9)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49(21.9)	40(19.3)	53(25.7)	142(22.3)	44(26.5)	45(27.4)	43(25.7)	132(26.6)
지난 1개월 동안, 체중감량을 위해 운동을 한 적이 있다	74(33.2)	76(36.4)	66(32.2)	216(33.9)	78(46.7)	74(45.1)	86(51.5)	238(47.8)
지난 1개월 동안, 체중감량을 위해 식사량을 줄인 적이 있다	38(17.0)	40(19.1)	32(15.6)	110(17.3)	63(37.7)	60(36.6)	64(38.3)	187(37.6)
지난 1개월 동안, 체중감량을 위해 하루 종일 굶은 적이 있다	8(3.6)	11(5.3)	6(2.9)	25(3.9)	6(3.6)	14(8.5)	16(9.6)	36(7.2)
지난 1개월 동안, 체중감량을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먹은 적이 있다	1(0.4)	4(1.9)	1(0.5)	6(0.9)	1(0.6)	3(1.8)	3(1.8)	7(1.4)
지난 1개월 동안, 체중감량을 위해 토하거나 설사약을 먹은 적이 있다	1(0.5)	2(1.0)	1(0.5)	4(0.6)	0(0.0)	2(1.2)	3(1.8)	5(1.0)

<표 8> 식습관 관련 행태 조사 (지난 1주일 동안)

항 목	남 자(n=642)				여 자(n=498)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과일 쥬스를 마신 횟수								
마신 적이 없다	56(25.5)	48(23.1)	42(20.8)	146(23.2)	45(27.1)	33(20.1)	46(27.5)	124(24.9)
1~ 3 번	96(43.6)	95(45.7)	106(52.5)	297(47.1)	73(44.0)	81(49.4)	85(27.5)	239(48.1)
4~ 6 번	38(17.3)	37(17.8)	20(9.9)	95(15.1)	32(19.3)	33(20.1)	15(9.0)	80(16.1)
7번 (매일 1번)	19(8.6)	12(5.8)	13(6.4)	44(7.0)	10(6.0)	3(1.8)	9(5.4)	22(4.4)
8번 이상	11(5.0)	16(7.7)	21(10.4)	48(7.6)	6(3.6)	14(8.5)	12(7.2)	32(6.4)
과일을 먹은 횟수								
먹은 적이 없다	23(10.5)	28(13.5)	25(12.3)	76(12.0)	11(6.6)	14(8.5)	10(6.0)	35(7.1)
1~ 3 번	105(47.7)	94(45.2)	97(47.5)	296(46.8)	70(42.2)	64(39.0)	74(44.6)	208(41.9)
4~ 6 번	57(25.9)	52(25.0)	47(23.0)	156(24.7)	54(32.5)	56(34.1)	56(33.7)	166(33.5)
7번 (매일 1번)	16(7.3)	16(7.7)	11(5.4)	43(6.8)	13(7.8)	15(9.1)	18(10.8)	46(9.3)
8번 이상	19(8.6)	18(8.7)	22(10.8)	59(9.3)	18(10.8)	15(9.1)	8(4.8)	41(8.3)
녹황색 채소를 먹은 횟수								
먹은 적이 없다	26(11.9)	22(10.6)	20(9.9)	68(10.8)	21(12.7)	14(8.5)	12(7.2)	47(9.5)
1~ 3 번	90(41.1)	105(50.5)	99(48.8)	294(46.7)	74(44.6)	84(51.2)	86(51.5)	244(49.1)
4~ 6 번	59(26.9)	53(25.5)	48(23.6)	160(25.4)	45(27.1)	35(21.3)	41(24.6)	121(24.3)
7번 (매일 1번)	25(11.4)	15(7.2)	20(9.9)	60(9.5)	12(7.2)	18(11.0)	15(9.0)	45(9.1)
8번 이상	19(8.7)	13(6.3)	16(7.9)	48(7.6)	14(8.4)	13(7.9)	13(7.8)	40(8.0)
녹황색 채소 이외에 다른 채소를 먹은 횟수								
먹은 적이 없다	46(21.0)	42(20.2)	30(14.7)	118(18.7)	30(18.2)	25(15.2)	26(15.6)	81(16.3)
1~ 3 번	100(45.7)	110(52.9)	103(50.5)	313(49.6)	79(47.9)	84(51.2)	91(54.5)	254(51.2)
4~ 6 번	41(18.7)	35(16.8)	44(21.6)	120(19.0)	37(22.4)	33(20.1)	31(18.6)	101(20.4)
7번 (매일 1번)	13(5.9)	14(6.7)	15(7.4)	42(6.7)	9(5.5)	13(7.9)	13(7.8)	35(7.1)
8번 이상	19(8.7)	7(3.4)	12(5.9)	38(6.0)	10(6.1)	9(5.5)	6(3.6)	25(5.0)
우유 마신 횟수								
마신 적이 없다	26(11.8)	22(10.6)	20(9.9)	68(10.8)	25(15.1)	24(14.6)	21(12.6)	70(14.1)
1~ 3 번	50(22.7)	61(29.3)	44(21.7)	155(24.6)	69(41.6)	74(45.1)	78(46.7)	221(44.5)
4~ 6 번	51(23.2)	46(22.1)	43(21.2)	140(22.2)	37(22.3)	39(23.8)	33(19.8)	109(21.9)
7번 (매일 1번)	47(21.4)	44(21.2)	46(22.7)	137(21.7)	29(17.5)	18(11.0)	20(12.0)	67(13.5)
8번 이상	46(20.9)	34(16.3)	50(24.6)	130(20.6)	6(3.6)	9(5.5)	15(9.0)	30(6.0)

<표 9> 식습관에 관한 위험한 행태 조사

항 목	남 자(n=642)				여 자(n=498)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할 경우 찌개류를 먹을 때								
국자로 따로 덜어서 먹는다	56(25.5)	54(26.3)	47(23.0)	157(25.0)	32(19.4)	25(15.2)	19(11.4)	76(15.3)
식구나 친구는 같이, 다른 사람과는 따로 먹는다	74(33.6)	72(35.1)	60(29.4)	206(32.8)	72(43.6)	82(50.0)	79(47.3)	233(47.0)
누구와도 상관없이 같이 먹는다	78(35.5)	73(35.6)	91(44.6)	242(38.5)	56(33.9)	53(32.3)	67(40.1)	176(35.5)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음식의 간 정도								
짜게 먹는다	87(39.2)	74(35.7)	91(44.4)	252(39.7)	49(29.3)	45(27.4)	52(31.3)	146(29.4)
보통으로 먹는다	126(56.8)	127(61.4)	109(53.2)	362(57.1)	113(67.7)	110(67.1)	105(63.3)	328(66.0)
싱겁게 먹는다	9(4.1)	6(2.9)	5(2.4)	18(2.8)	5(3.0)	9(5.5)	9(5.4)	23(4.6)

<표 10>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행태 조사

항 목	남 자(n=642)				여 자(n=498)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지난 1주일 동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루 이상 한 적이 있다	186(83.8)	167(79.9)	162(78.3)	515(80.7)	91(54.5)	72(43.9)	78(47.0)	241(48.5)
지난 1주일 동안, 땀이 나지는 않을 정도의 운동을 적어도 30분 이상 한 적이 있다	132(60.3)	132(63.8)	118(57.0)	382(60.3)	87(52.4)	78(47.6)	87(52.7)	252(50.9)
지난 1주일 동안, 근육강화 운동을 하루 이상 한 적이 있다	126(56.5)	126(60.9)	120(58.0)	372(58.4)	37(22.6)	30(18.3)	29(17.5)	96(19.4)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								
평일에는 보지 않는다	14(6.3)	7(3.4)	8(3.9)	29(4.6)	5(3.0)	10(6.1)	20(12.0)	35(17.1)
1시간 미만	39(17.5)	25(12.3)	31(15.0)	95(15.0)	21(12.7)	17(10.4)	19(11.4)	57(11.5)
1~2 시간	90(40.3)	85(41.6)	93(44.9)	268(42.2)	55(33.3)	48(29.2)	67(40.3)	170(34.3)
3~4시간	58(26.0)	62(30.4)	55(26.6)	175(27.6)	59(35.8)	77(43.9)	46(27.7)	177(35.8)
5시간 이상	22(9.9)	25(12.3)	20(9.7)	67(10.6)	25(15.2)	17(10.4)	14(8.4)	56(11.3)
하루 평균 컴퓨터 ·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 (DDR 제외)								
하지 않는다	20(8.9)	14(6.8)	14(6.8)	48(7.5)	32(19.3)	41(25.3)	56(33.7)	129(26.1)
1시간 미만	37(16.5)	17(8.2)	23(11.2)	77(12.1)	40(24.1)	27(16.7)	26(15.7)	93(18.8)
1~2 시간	111(49.6)	103(49.8)	77(37.5)	291(45.7)	60(36.2)	57(35.2)	49(29.5)	166(33.6)
3~4시간	43(19.2)	49(23.7)	73(35.4)	165(25.9)	30(18.0)	29(17.9)	25(15.1)	84(17.0)
5시간 이상	13(5.8)	24(11.6)	19(9.2)	56(8.8)	4(2.4)	8(4.9)	10(6.0)	22(4.5)

있다고 답한 남학생이 80.7%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여학생에서는 48.5%로 낮게 나타났다. 지난 1주일 동안, 저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한 남학생은 60.3%, 여학생은 50.9%였으며, 근육강화 운동을 하루 이상 한 적이 있는 학생도 남학생에서는 58.4%, 여학생에서는 19.4%였다.

하루 평균 TV시청 시간은 남학생에서는 1-2시간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에서는 1-2시간과 3-4시간 사이가 각각 35% 정도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하루에 TV를 5시간 이상 시청한다고 답한 학생은 남학생에서 10.6%, 여학생에서 11.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루 평균 컴퓨터와 비디오게임을 하는 시간은 남학생에서 1-2시간 사이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에서도 1-2시간 사이가 33.6%로 가장 많았다. 하루에 평균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을 5시간 이상 한다고 답한 학생도 남학생에서 8.8%, 여학생에서 4.5%나 되었다(표 10).

대상자들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학년, 종교,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와의 동거여부, 오토바이 탑승여부, 규칙적인 운동여부,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나 비디오게임여부, 용돈액수, 흡연여부, 우울감이나 절망감 경험여부를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흡연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OR=0.176, 95% 신뢰구간: 0.096-0.323), 성격은 내성적인 성격에 비해 내성적인 아닌 학생에서 흡연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2.598, 95% 신뢰구간: 1.204-5.603). 학교성적은 상위 30%인 학생에 비해 중위 40%의 학생이 흡연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OR=2.629, 95% 신뢰구간: 1.266-5.459), 지난 1년 동안 폭력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는 학생들에 비해 싸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 흡연경험이 적었다(OR=0.378, 95% 신뢰구간: 0.224-0.638). 남학교

<표 11>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변 수		OR	95%CI
성별	남자	1	
	여자	0.176	0.096-0.323
성격	내성적	1	
	중간	2.598	1.204-5.603
	외향적	1.735	0.990-3.041
성적	상위 30%	1	
	중위 40%	2.629	1.266-5.459
	하위 30%	1.266	0.738-2.174
학교형태	남학교, 여학교	1	
	남녀공학	1.917	1.184-3.105
폭력싸움경험	있다	1	
	없다	0.378	0.224-0.638
음주경험	있다	1	
	없다	5.490	3.454-8.725

나 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비해 남녀 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서 흡연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OR=1.917, 95% 신뢰구간: 1.184-3.105),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에 비해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이 흡연경험이 적었다(OR=0.182, 95% 신뢰구간: 3.454-8.725)(표 11).

음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종교, 성격,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와의 동거여부, 규칙적인 운동여부,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나 비디오게임, 학교의 남녀공학여부를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1학년보다 2.7배 음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OR=2.758, 95% 신뢰구간: 1.762-4.319), 3학년은 1학년보다 1.5배 높게 나타났다 (OR 1.578, 95% 신뢰구간: 1.065-2.339).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7배 정도 음주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OR=1.715, 95% 신뢰구간: 1.133-2.596), 오토바이를 탄 경험이 없는 학생이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0.6배 정도 음주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OR=0.604, 95% 신뢰구간: 0.372-0.981). 또한 지난 1년 동안 폭력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는 학생들에 비해 싸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 음주경험이 적었으며(OR=0.610, 95% 신뢰구간: 0.383-0.972),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계속해서 일상생활이 방해받을 정도로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학생에 비해 경험이 없었던 학생이 음주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OR=0.450, 95% 신뢰구간: 0.302-0.670).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에

<표 1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변 수		OR	95%CI
학년	1학년	1	
	2학년	2.758	1.762-4.319
	3학년	1.578	1.065-2.339
성별	남자	1	
	여자	1.715	1.133-2.596
한달 용돈	만원 미만	1	
	만원-이만원 미만	1.420	0.742-2.721
	이만원-삼만원미만	1.621	1.025-2.564
	삼만원 이상	1.448	0.937-2.237
오토바이탑승경험	있다	1	
	없다	0.604	0.372-0.981
폭력싸움경험	있다	1	
	없다	0.610	0.383-0.972
우울절망감	있다	1	
	없다	0.450	0.302-0.670
흡연경험	있다	1	
	없다	0.194	0.123-0.307

서 음주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적어(OR=0.194, 95% 신뢰구간: 0.123-0.307) 음주와 흡연간에 깊은 관련성을 보였다(표 12).

Ⅳ. 논 의

우리 나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망률 및 이환율에 기초를 둔 건강위험행동의 체계적인 조사는 미미하며, 주로 흡연과 음주, 약물남용, 식습관, 성행위와 같은 위험행동(risk behavior)을 단편적으로 조사한 연구들만 있다(맹광호, 1988; 박종구, 1988; 서일, 1988; 서일 등, 1988; 이해숙 등, 1989; 이경신 등a, 1990; 이경신 등b, 1990; 맹광호와 신의철, 1993; 김혜영과 송경희, 1994; 최정수 등, 1995; 은종영과 박충선, 1997). 이들 연구 또한 대부분이 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중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연구의 대상인 대구지역 중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드물게 착용하는 학생이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중학생의 경우 오토바이를 타본 학생이 96명, 여학생이 43명이나 되었다. 자전거를 탈 때에도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헬멧 착용률이 낮았다.

지난 한달 동안 등하교시 신변의 위협 때문에 결석을 한 학생도 남학생에서 한 학급당 1-2명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1년간 몽둥이, 칼 등으로 위협받은 적이 있는 남학생도 5%를 넘었다 또한 폭력적인 싸움이 대부분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1년간 친구로부터 구타를 당한적이 있는 학생도 남자에서 20% 정도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나타내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과 절망감은 여학생에서 더 많았으며,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학생도 이들 중 여학생에서 20%나 되었다. 그리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2.5%나 되어 청소년 시기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나타내었다. 우리 나라 청소년기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2번째로 높은 원인임을 감안 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연구대상자들인 중학생들의 평생 흡연률은 남학생에서 20%, 여학생에서 8.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 등(199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 남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1988년 1.8%에서 1997년 3.9%로, 여자 중학생의 흡연율이 1991년 1.2%에서 1997년 3.9%로 8년사이 남녀 각각 2.3배와 2.6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학생과 같이 청소년기의 조기 흡연은 성인기의 흡연여부와 흡연량을 결정하는 주요인자이며,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유의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중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흡연문제는 개인 및 사회의 건강과 관련된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학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사대상 중 흡연경험자중에서도 현재 흡연자와 규칙적인 흡연자가 남녀 모두에서 3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에 대한 교육을 좀더 어릴 때 시작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금연을 시도해 본 학생은 흡연경험자중 남자에서68%, 여자에서 74%나 되어 금연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이 반영되므로 금연교육 및 금연유도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담배를 구입한 방법을 볼 때 아직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담배 구입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60%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문제와 더불어 학교보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관심사항 중 하나는 음주 문제이다. 조사 대상자중 현재음주자가 남학생에서 음주경험자 168명중 47%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도 62%가 음주경험자중 현재 음주자로, 남학생에 비해 오히려 많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지난 1개월 동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도 남녀학생에서 모두 10%에 약간 못 미치는 높은 수준 이였다. 과도한 음주는 특히 청소년시기에 사고 및 일탈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음주는 학교 내에서 다른 사회, 보건학적 문제 및 폭력행위, 신체적 부상, 학교내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83).

조사대상 학생들이 체중감량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방법은 운동이었으나, 식사량을 줄이거나, 하루종일 굶기, 체중감소를 위한 약물 오남용을 한 학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무려 반 이상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만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는데 실제 체중은 정상범위에 속하나 본인 스스로 과체중 비만이라고 판단하거나 잘못된 상업주의적 영향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관하거나 불필요한 노력을 하는 위험 행동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책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식습관과 관련된 행태조사에서 지난 1주일 동안 과일주스를 한번도 마시지 않은 학생이 남학생, 여학생 20%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녹황색 채소를 한번도 먹지 않았다고 대답한 학생도 10% 수준이였다.

평상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할 경우 찌개류를 먹을 때 누구와도 상관없이 같이 먹는다고 대답한 학생은 남자에서 38%, 여자에서 35%였으며, 다른 사람에 비해 음식을 짜게 먹는다고 답한 학생은 남학생에서 40%, 여학생에서 30%였다. 신선한 야채의 소비는 심혈관계 질환, 암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식생활의 개선이 요구되며, 타액으로 전염되는 여러 질환을 고려하여 식사시의 개인 위생에도 관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짜게 먹는 식습관은 고혈압, 위암 등의 만성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식습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식습관은 정규교육을 받기 이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형성되며 이후 학교생활 등을 통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강화되는 습관이므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부모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학생, 학교 등 관련기관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YRBS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데, 첫째 어떤 특정한 지역의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또는 수정하는데 사용하며, 둘째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달성의 진전의 정도를 감시하는데 사용하며, 셋째 청소년에서 위험행동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데 사용하며, 넷째 특정한 보건교육과정과 학교보건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주에서의 변화를 조장하며, 마지막으로 증거에 기초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우리 나라의 경우도 우리 실정에 맞는 YRBS를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한다면, 미국의 활용범위와 마찬가지로 적용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V. 결 론

청소년기간의 건강한 생활 양식의 습득은 개개인에게 평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이 시기에 대부분의 보건과 관련된 지식, 태도, 행동의 학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큰 변화를 격는 시기이고, 이시기에 평생동안 지니는 습관과 태도를 습득한다. 성장은 위험을 동반하며, 위험의 정도를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청소년기의 특징은 또래의 집단의식이 강하다는 것인데,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은 학생들간의 대화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건강과 관련된 위험행동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는 아직 미국에서 개발된 청소년 위험행동 감시시스템과 같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수립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 한 구에 소재 하는 10개의 중학교에 한 학교 당 각 학년별로 한 개 학급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 1040명에서 청소년 개인의 건강위험행동을 조사하였다.

설문은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개발한 Youth Risk Behavior Survey(YRBS) 설문지를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몇 가지 항목을 빼거나 수정 또는 추가한 한국판 청소년위험행동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구지역 중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드물게 착용하는 학생이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달 동안 등하교시 신변의 위협 때문에 결석을 한 학생도 남학생에서 한 학급당 1-2명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1년간 몽둥이, 칼 등으로 위협받은 적이 있는 남학생도 5%를 넘었다 또한 폭력적인 싸움이 대부분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1년간 친구로부터 구타를 당한 적이 있는 학생도 남자에서 20% 정도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나타내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과 절망감은 여학생에서 더 많았으며,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학생도 이들 중 여학생에서 20%나 되었다.

대상자의 평생 흡연률은 남학생에서 20%, 여학생에서 9%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구입한 방법을 볼 때 아직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담배 구입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60%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중 현재음주자가 남학생에서 음주경험자 168명중 47%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도 62%가 음주경험자중 현재 음주자로, 남학생에 비해 오히려 많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지난 1개월 동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도 남녀학생에서 모두 10%정도 되었다.

조사 대상 여학생의 무려 반 이상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만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는데 실제 체중은 정상범위에 속하나 본인 스스로 과체중 비만이라고 판단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감량을 위한 노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방법은 운동이었다. 하지만 식사량을 줄이거나, 하루종일 굶기, 체중감소를 위한 약물 오남용을 한 학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습관과 관련된 행태조사에서 지난 1주일 동안 과일주스를 한번도 마시지 않은 학생이 남학생, 여학생 20%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녹황색 채소를 한번도 먹지 않았다고 대답한 학생도 10% 수준이였다.

미국에서는 YRBS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데, 첫째 어떤 특정한 지역의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또는 수정하는데 사용하며, 둘째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 달성의 진전의 정도를 감시하는데 사용하며, 셋째 청소년에서 위험행동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데 사용하며, 넷째 특정한 보건교육과정과 학교 보건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주에서의 변화를 조장하며, 마지막으로 증거에 기초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우리 실정에 맞는 YRBS를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한다면, 미국의 활용범위와 마찬가지로 적용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혜영, 송경희. 충주 시내 중학생들의 간식 섭취 실태와 체지방량에 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994;20:125-139.

맹광호. 한국인 성인 남녀의 흡연 관련 사망에 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1988;10:138-145.

맹광호, 신의철. 1개 의과대학 남학생들의 흡연 실태 및 흡연관련 특성 분석. 한국역학회지 1993;15(1):96-104.

박종구. 우리 나라에서 흡연 연구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역학회지 1988;10:146-152.

서일. 한국인의 흡연률과 그 역학적 특성. 한국역학회지 1988;10:131-137.

서일, 이해숙, 손명세, 김일순, 신동천, 최영이. 전국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실태. 한국역학회지 1988;10:219-229.

서일, 지선하, 김소윤, 신동천, 류소연, 김일순. 한국 중,고등학생의 흡연양상변화:1988-1997. 한국역학회지 1998;20:257-266.

은종영, 박충선.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997;23(2):35-59.

이경신, 김주혜, 모수미. 고3 대학수험생의 식생태 조사에 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990;16(1):48-60.

이경신, 최경숙, 모수미, 박준교. 서울시내 일부 중학교 학생의 식생태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990;16(1):29—38.

이해숙, 김일순, 서일. 전국 남자 중·고등학생들의 2년간의 흡연력의 비교(1988-1989). 한국역학회지 1989;11:198-208.

최정수, 남정자, 김태정, 계훈방.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1995)-1995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대명출판사.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Surveillance Summaries, October 29, 1999, MMWR 1999; 48, No. SS-7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emporal pattern of motor vehicle-related fatalities associated with young drinking drivers, United States, 1983; Morbid. Mortal. Wkly. Rep, 33, 699-701

Kolbe LJ, Kann L, Collins JL. Overview of the Youth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Public Health Reports 1993; 108(Supp.1),

2-10

Naidoo J, Willis J. Health Promotion: Foundations for Practice London. 2nd Eds Bailliere Tindall, 2000.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Guide to Clinical Preventive Services.* 2nd Eds.,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96; 611-624.

U.S. Dep. Health Hum.Ser., Public Health Serv. Healthy people 2000. National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Objectives.(PHS), 1991; 91-50213, Washington, DC: GPO.

<ABSTRACT>

Youth Risk Behavior Surve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Jung-Jeung Lee · Choong-Won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health-related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get fundamental research data essential to provide efficient student guidance and public health service at school

The interview using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YRBSS). Translation and modification for Korean students of the YRBS

The Korean version of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that translation and modification for Korean students of the YRBS developed by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was used to assessment to health-related behaviors of youth.

The interviewees were 1040 enrolled students at middle school in Daegu metropolitan city.

YRBSS monitors six categories of priority health behaviors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behaviors that contribute to unintentional and intentional injuries ; tobacco use; alcohol and other drug use, sexual behaviors that contribute to unintended pregnancy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STDs)(including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unhealthy dietary behaviors; and physical activity.

The result shows that over 30% of students rarely or never used safety belt and almost students were rarely or never wore a bicycle helmet. During the 12 months preceding the survey, 21.9% female students had felt so sad or hopeless almost every day for ≥2weeks in a row that they stopped doing some usually activities

20.5%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have ever tried cigarette smoking. 26.2% of male students and 27.2% do female students had had over one drinks of alcohol during their lifetime(lifetime alcohol use). 47% of male students had had over one drinks of alcohol on ≥1 of the 30 days preceding the survey(current alcohol use). Over one half of female student were thought they were overweigh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me risk behaviors be very prevalent in a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and priority health-risk behaviors, which contribute to the leading cause of mortality and morbidity among youth and adult, often are establish during middle school age, extend into adulthood, are interrelated.

Among both children and adults, the leading causes of death are closely linked to these behaviors. Among adults, chronic diseases such as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and diabetes are the national leading killers. Practicing healthy behaviors, such as eating low-fat, high-fruit-and-vegetable diets, getting regular physical activity, and refraining from tobacco use, would prevent many premature deaths. Because health-related behaviors are usually established in childhood, positive choices need to be promoted before damaging behaviors are initiated or become ingrained.

Key words :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middle school students